

[2001 기도축제] 넷째 날 : 기도와 영적전쟁

박인용 목사 / 본문 : 왕상 18:36~40 / 페이지 수: 2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려면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헌신도와 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적 출애굽

영적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고 묻습니다. 본문의 ‘머뭇거리다’는 표현은 한 발로는 여호와와 의 길을, 한 발로는 바알의 길을 걸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어둠의 세력과 허탄한 세력들과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던 중에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대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누구든지 여호와와 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만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칼로 다른 지파를 도륙할 것을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 말을 순종해서 방금 전까지도 함께 우상 앞에서 춤을 추었던 친구들과 이웃들의 목을 칩니다. 이 사건으로 3천명이 죽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그가 오늘날 네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불신앙의 침묵에서 나아오라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속해있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며 일을 시작하기 전 내 백성이 누구인가 확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레위 지파는 원래 축복을 받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남은 자손으로 편입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교회는 자기만족과 타협과 세속주의에 깊게 물들었다고 하십니다. ‘차지도 덤지도 않아 토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고백을 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시대에는 영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던 영적인 혼돈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였습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대로 오늘 나의 삶과 감정과 인격을 지배하여 발걸음이 지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편에 서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념, 지식, 지성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삶으로, 몸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 승리의 첫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바알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의 한계는 21절의 말씀에서처럼 엘리야의 선포에 불신앙의 침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다수의 불신앙 가운데서 뛰쳐나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 건강, 시간, 미래를 내놓고 하나님께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